

■ 2011년 4월 18일 월요일

## 동·서양 문화교류 주무대

### 실크로드를 2011년 아시아문화비전 소장의 터전



#### 박 하 선 아시아문화비전 소장

“사막하면 모래와 흙먼지가 가득한 황량한 곳을 연상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 천 년을 살아오며 터득한 지혜로 개발한 카나트(Qanat·지하수로)를 이용해 농사도 짓고 양과 염소도 키우며 잘 살고 있고, 청포도가 지천인 곳도 있구요.”

지난 14일 옛 전남도청 앞 아시아문화마루(콘서트홀)에 모인 200여 명의 시민들은 사진작가 박하선(57·아시아문화비전 소장)씨가 소개하는 사진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최하고 광주교육대와 광주MBC가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 문화이해세 번째 공개강좌에서 박씨는 ‘실크로드에 스며든 아시아인의 삶’을 주제로 동서문화가 만나는 실크로드의 어제와 오늘을 설명하고 각기 특성에 맞게 일구어낸 그들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씨는 당나라 장안에서 로마에 이르는 길인 실크로드를 단순히 비단무역에 국한한 교역로 정도로 이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 속에 다양한 민족의 삶이 걸려있고 동·서양의 교류와 충돌, 종교간

대립과 공존 등이 스며있는 역사와 문화 공동체를 소개했다.

1989년 한·중 수교 이전 실크로드를 시작으로 아시아민족의 삶과 문화를 카메라에 담아 왔다는 박씨는 “협하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듯 그들도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에 따라 생활하고 또 그들의 아름다운 문화를 일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차례 오지 여행을 통해서 실크로드가 아시아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문화·예술교류의 주무대였음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통 어린시절이 떠오르죠. 찬찬히 들여다보면 동질성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문화 석굴에서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을 만나 활발했던 문화교류를 상상해보고, 위구르족의 빵과 면을 보면서 라면과 피자의 원류에 대해 생각했죠.”

그는 실크로드를 여전히 ‘열린 길’이라고 단언했다. 세계 정세상 많은 곳이 단절되었지만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한 이 길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번성할 것이라는 것이다.

“오랜 역사의 수레바퀴흔적을 더듬어 가면 우리 아시아의 미래가 그곳에 있을 줄 알 수 있죠”

그는 또 아시아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로 부상하고 있는 이 때 “아시아 문화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실크로드를 그만큼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라며 “아시아의 또 다른 미래를 열 수 있는 길로 찾고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출생인 박씨는 2001년 국내 최초로 월드컵포 포토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실크로드’(1990년), ‘티벳’(1991년), ‘문명의 지평’(2000년), ‘아시아의 봄’(2009년)을 비롯해 다수의 개인·그룹전에 참가했다. 또 오지 사진전문가로 여행집단 ‘문명의 지평’ 단장을 맡고 있으며 사진제 ‘HaSSan’을 이끌고 있다

한편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의 네 번째 강좌는 28일 오후 4시 광주교육대 대강당에서 ‘다문화가 힘이다’를 주제로 필리핀이주여성인 이자스민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의 강연이 이어진다. 문의 062-520-433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하선 작 ‘양고기가 들어있는 군만두를 사고 파는 위구르족 어린이들’

## 고장난 백남준 작품... 대책은 “글세요..”

광주비엔날레재단, ‘고인돌’ 관리부실 부분 고장  
“모니터 생산 중단·저작권 문제 등 보수 어려워”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보관 중인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 ‘고인돌’이 관리 부실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모니터 등 전자 장비들이 갈수록 낡아 결국엔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단은 보수계획과 예산도 책정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관 1층 현관에 전시된 ‘고인돌’은 지난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출품작이었던 백씨가 순천 고인돌공원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것이다. 재단은 비엔날레 폐막후 재료비 5만달러를 주고 ‘고인돌’을 구입했다. 백씨의 당시 작품 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그가 광주를 위해 기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작품은 14인치 모니터 67대, 20인치 모니터 12대 등 82대의 모니터가 고인돌 형태로 세워져 있는데, 모니터의 상당수가 낡고 출력이 고르지 않아 제대로 작품을 감상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모니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3개의 케이블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모니터 화면이 흐릿해졌고, 원작의 컬러도 사라져 버렸다. 또 잦은 모니터 고장으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백남준 작품 관리는 비단, ‘고인돌’만의 일은 아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보관하고 있는 ‘다다이즘’의 모니터 상당수도 꺼지는 등 문제를 일으켜 백씨의 작품을 보유중인 미술관과 컬렉터들이 애를 먹고 있다.

특히 현재는 생전 그가 사용한 모니터 생산이 중단돼 대체할 수 있는 모니터와 부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대부분 미술관들이 서울 청계천과 과거 국내 모니터를 사들였던 동남아 지역에서 백씨 작품에 사용된 동일 모니터를 일부 구입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이제는 찾아내기 힘들어졌다.

또 최근에 생산된 LCD나 PDP 모니터로 완전히 교체해버리면, 원작의 원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미술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재단은 작품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한 종합 관리 계획과 예산 마련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백남준 작품을 수리하고 있는 한 국내 기술자는 “백 선생 작품 관리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아예 작품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 관계자는 “모니터를 교체했을 때의 저작권 문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면서 “작품 보수를 위해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종합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익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보관하고 있는 백남준의 ‘고인돌’의 전자 장비가 낡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오페라요! 해설 있어 어렵지 않아요”

광주시립합창단, 22~23일 ‘코지 판 투테’ 공연  
서울 장수동감독 연출·탤런트 서재경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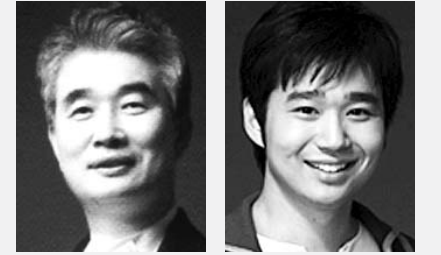
매주 케이블을 통해 방영중인 ‘오페라스타’는 테이, 신해철 등 대중가수들이 전혀 생소한 장르인 오페라에 도전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별은 빛나건만’ 등 오페라 아리아가 음악 차트에서 선전하는 등 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이 오는 22일(오후 7시30분), 23일(오후 4시) 두차례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해설이 있는 오페라 ‘코지 판 투테’(여자는 다 그대를 무대에 올린다.

오페라가 다른 클래식 장르에 비해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번 무대는 오페라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울오페라앙상블 장수동 예술감독이 직접 연출을 맡았고 탤런트 서재경이 해설자로 나선다.

모차르트의 작품인 희극 ‘코지 판 투테’는 18세기 나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부유한 귀족 자매인 피오르딜리자와 도라벨라를 연인으로 둔 굴리엘모와 페르란도가 세상의 여자가 다 변해도 자신들의 애인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며 내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구천 서재경

연인 도라벨라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페르란도가 부르는 ‘우리 연인의 사랑스러운 숨결은’, 굴리엘모의 ‘너무 딱딱하게 대하지 마세요’ 등 유별 아리아와 2중창곡 ‘가슴에 안겨서’, 3중창곡 ‘바람이 잔잔하기를’ 등 다양한 성악곡을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510-93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 moviehelic 따뜻한 봄날 즐거운 영화함 함께 하세요

**위험한 상견례**

상당원연결 방법 (1번 or 2번) - 0번  
☎ 1588 - 7941

상무점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1관 위험한 상견례 (15세)
2관 나는 아바다 (18세)	2관 나는 아바다 (18세)
3관 월드인베이션 (12세)/수상한 고객들 (15세)	3관 위험한 상견례 (15세)
4관 내이름은 칸 (12세)	4관 노미오와 줄리엣/올리야의 눈/라스트나잇
5관 써커펀치 (15세)	5관 써커펀치 (15세)
6관 노미오와 줄리엣 (전체)/황당한 외계인 풀 (15세)	6관 노미오와 줄리엣 (전체)/황당한 외계인 풀 (15세)
7관 위험한 상견례 (15세)	7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8관 노미오와 줄리엣 (전체)	8관 한나 (15세)
9관 올리야의 눈 (18세)	9관 내이름은 칸 (12세)
10관 한나 (15세)	10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조조 영화하면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최장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한나**

구. 런던악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한나 (15세) 최고급관  
2관 내이름은 칸 (12세)  
3관 노미오와 줄리엣 (전체)  
4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5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6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7관 써커펀치 (15세)  
8관 나는 아바다 (18세)  
9관 올리야의 눈 (18세)  
10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최장, 황금주최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아바다**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나는 아바다 (18세)
2관 한나 (15세)
3관 위험한 상견례 (12세)
4관 노미오와 줄리엣 (전체)
5관 올리야의 눈 (18세)
6관 라스트나잇 (18세)
7관 그대를 사랑합니다 (15세)
8관 써커펀치 (15세)
9관 수상한 고객들 (15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o.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